

사회적 재난 이후 조성된 기억장소의 의미해석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김도훈* · 성종상**

*조경하다 열음 연구소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I. 서론

화재, 붕괴, 폭발 등 일련의 사건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대중의 공분을 일으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을 사회적 재난이라 한다. 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항상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다. 때로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재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활동이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며 집단 외상을 치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의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선정했고,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건의 시작과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참사 당시 배가 침몰하는 모습과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애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사고 수습 장기화로 인해 재난현장 이슈가 지역사회로 확산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고통의 경험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상인, 일반 시민들에게 이어진 것이다.

연구자는 세월호 참사가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와는 다르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차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재난 경험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감과 지지를 유지하며 긍정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참사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장의 기억이 훼손되거나 형식적 기억 활동만 전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난 초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지나간 사건 기록이 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재난 현장기억을 보존하고 확산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를 교훈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기억장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잊지 않게 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행동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억장소는 재난 대응 및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기억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기억장소가 어떠한 생성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한 특성 및 역할을 파악했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판단을 위하여 현장 중심 참여 관찰과 공간 사회적 의미해석 방안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I. 기억장소의 특성과 생성변화 과정

본 연구는 재난 속에서 기억장소의 다차원적 분석을 수행하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기억장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기억장소의 지역별, 주체별 현황을 고려하여 공간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사회적 · 공간적 · 제도적 ·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담론을 통해 기억장소의 생성 및 변화과정도 파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의 단계별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기억장소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긍정적 요인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또 다른 일면의 결과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기억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지금까지 존재하는 동기와 요구를 확인한 것이다. 기억장소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하여, 재난 참사 극복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쳐 생산, 소멸, 변용이라는 생성변화를 단계를 파악했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15개 대상에 적용해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III.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의미해석

세월호 참사 기억장소 의미해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사항은 '물리적 · 비물리적 장소 생산'이라는 특징이다. 물리적 장소는 팽목항, 동거차도, 침몰해역 등 재난현장에 아직 존재하며 현장의 기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비물리적 장소의 형태로는 선물, 편지, 촛불 문화제 등 공감의 마음을 표출하는 공감장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망각과 외면으로 인한 장소 소멸'이라는 특징이다. 이는 정부합동분향소, 단원고 기억교실, 광화문광장 등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가치대립과 이해충돌

의 발생으로 공간과 장소가 사라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 재난 참사들과 다른 세월호 참사에서만 발견된 장소의 변용이라는 특징이다. '대안적 기억 활동에 따른 장소 변용'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유품이나 개인의 추억 등에 의미가 부여되어 사회적 공감의 장소가 되고, 떠난 이들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전하는 사회적 실천 활동은 세월호 참사에서 두르게 나타난 특별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은 과거 기록으로만 남을 뿐,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역사적 의미로 승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사례를 연구하며 진도, 안산, 목포, 서울, 제주도 등에는 기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사회교류 활동도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장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갈등 및 정치적 이념 쟁점화 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결과로 알게 되었다. 강요가 아니라 양보와 공론화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변화와 혁신 플랫폼 역할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했다.

IV. 시사점 및 제언

첫 번째로 도출된 사항은 기억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재난 현상은 공간 영역의 확장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재난 이후 생성된 장소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달리하면서 대두된 현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건 발생 현장뿐만 아니라 추모 활동이 이루어진 모든 곳이 기억장소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흔히 추모 장소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현장에 만들어진 박물관, 기념관, 추모비 등 물리적 공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장소가 전국적으로 형성된 것은 세월호 참사만의 특별함이다. 전 국민이 마음을 전하고자 일시적 공간점유로 사회적 애도를 위한 장소들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곳이 기억장소가 되었고 재난현장 범주가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재난현장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한국 사회는 재난이란 과거로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기억을 통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망각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여전히 팽목항에 가만 시민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남아 있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포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라는 영구적 장소가 되어 역사적 교훈과 반성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바라본 기억장소는 현장의 정체성 및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재난현장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역사적으로 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재난현장이 기억장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장소가 유지되고 활용되는 상황은 다른 사회적 재난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기억장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기억장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관계회복 및 갈등해소 요구가 제기되면서 일상적 기억장소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과거에 함께 했던 순간, 사용했던 물건, 만났던 사람 등의 일상적 기억이 특별한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 일상적 기억장소가 된 것이다. 사라져 가는 기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상적 기억장소를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기억장소는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적 분위기가 드러워졌고, 주로 개인적 애도와 상징적 추모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날 혹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방문하여 사회적 참여와 대중적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같은 일상적 기억장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은 기억장소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참여 증진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희생자를 기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성찰적 활동을 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의 두드러진 참여 활동은 기존 재난 양상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현상이다. 그들은 재난 당시 아픔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남겨진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실천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점차 개인적 고통을 벗어나고자 했고, 희생이 교훈이 되는 사회적 기억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다움'의 인식을 바꾸었다. 떠난 이들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 노력은 세월호 참사에서만 대두된 특별한 과정이다. 유가족 주체의 능동적인 참여는 단순히 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지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고통을 승화하며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결과는 트라우마 치유의 과정이 되었다.

참고문헌

1. Halbwachs, M.(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